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4. 11.(화) 11:00 < 4.12.(수) 조간 > 배포 2023. 4. 11.(화)

한전·가스공사,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성과 함께 경영혁신 대책 마련할 필요

- 산업부 2차관,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 주재 -

한전과 가스공사는 국민들께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을 호소하기 이전에 보다 뼈를 깎는 자구대책을 준비 중이라면서, 인건비 감축, 자산 추가매각 등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.

동 경영혁신방안에는 취약계층 지원, 에너지사용의 효율화 등 향후 에너지분야의 핵심적인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혁신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. 아울러 국민들께 에너지공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이다.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 박일준 2차관은 4.11.(화) 「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*」를 주재하고, 한전·가스공사의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구계획 및 조직혁신 방안을 발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* (일시/장소) '23.4.11(화) 13:30 / 한전아트센터(서울 서초 소재) 11층 대회의실
(참석자) 2차관(주재), 전력정책관, 자원산업정책국장, 한전·가스공사 사장 등

회의에서는 지난 4월 6일 민당정간담회에서 보고된 약 28조원 규모의 한전·가스공사의 자구계획의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였다. 한전과 가스공사는 기존 자구계획이 적자 및 미수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고통분담에 나서야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당정 및 전문가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, 보다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하였다.

이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적자 및 미수금이 해소될 때까지 전 임직원이 비상경영체계를 갖추기로 하고, 인건비 등 비용절감, 불필요한 자산매각 및 출자조정 등의 추가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.

아울러 지난 '3.30 당정협의' 및 '4.6 민당정 간담회'에서 확인되었던 바와 같이 에너지요금 조정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 및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화를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혁신방안도 경영혁신대책에 포함하기로 하였다.

박일준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"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으나, 에너지요금 인상시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만큼,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국민들께서 요금인상도 납득하실 수 있을 것" 이라는 민당정 간담회 논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,

"한전과 가스공사는 경영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현재 마련 중인 경영혁신 방안이 국민에 눈높이에 맞는 최선의 자구조치와 합리적인 조직혁신 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"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문양택 (044-203-3880)
		담당자	서기관	이디도 (044-203-3885)
	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덕열 (044-203-5230)
		담당자	사무관	정한솔 (044-203-521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